

불교의 孝, 가족초월 인간해방 지향

2008년 4월 하남시 제2화장장 설립 계획이 무산되면서, 종교계의 장례문화 주도과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 불교계 일각에서는 경제력을 포교로 위장해 일본 장례불교를 벤치마킹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생사의례(供養) 문화비교 연구회가 동국대에서 국제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한일 불교학 연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5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열린 연구발표회에는 김호성 교수(동국대), 마쓰오 겐지 교수(日, 아미가카 대학), 이성운 사장(정우서적)이 발표했다.

일본 장례불교 성립 배경

마쓰오 겐지 교수는 '일본 중세에 있어 죽음과 불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마쓰오 교수는 "일본 사람들이 승려를 만날 기회는 장례식과 기일(忌日) 법회 등에 한정되며, 승려는 경내 묘지 관리자로 인식된다"며, 장례불교라는 말에는 불교인의 그러한 현상에 대한 비판·야유가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장례불교가 발전한 배경에 대해 마쓰오 겐지 교수는 "죽음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문세승들로 인해 일본에 불교적 생사관이 널리 유행했다"고 진단했다.

관승(官僧)은 천황의 허가를 얻어 득도한 승려로 동대사·관세음사·연력사 등 세 계단(戒壇)에서 수계한 자를 말한다. 반면에 문세승(文世僧)은 천황과 무관한 입문의례 시스템을 가진 관승 외의 승려를 일컫는다.

마쓰오 겐지 교수는 "관승과 문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장례 종사 여부였다"며, "일본에서 승려가 장례의식을 담당하게 된 것은 2차대전 이후"라 소개했다.

문세승들이 장례를 담당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마쓰오 교수는 사예(死諭)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예는 사체를 만지기나 장례, 개장 등을 해서 생기는 두려움을 말한다. 장례 등에 종사한 사람은 사예를 이유로 30일간 법회 등에 참여를 삼가야 했다.

마쓰오 겐지 교수는 사예의 예로 "임종이 임박한 승려나 혈연이 없는 이들을 짙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길가나 강가에 버리기도 했다"며, "관인(管人)이나 관승에게는 사예가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말했다.

반면에 문세승들은 장례 등 죽음

생사의례문화비교연구회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 일시 : 2008년 9월 5일 오후 2시
- 장소 : 동국대 다학관
- 주최 : 日本 供養の 比較文化研究會
- 후원 : 동국대 불교대



9월 5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열린 국제 학술연구발표회에서 발제한 김호성 교수(왼쪽)와 마쓰오 겐지 교수.

유교·힌두교의 효 개념 가부장제에 뿌리 일본 불교의 생사관·장례문화 '둔승'이 주도

의 더러움에서 자유로웠다. 마쓰오 교수는 "사예의 제약이 없던 문세승들이 자연스레 장례에 관여했고, 자연스럽게 문세승 사찰에는 묘지가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마쓰오 교수는 "1220년대 사체유기가 크게 감소했다"며, "유기된 사체까지도 장례한 문세승 교단 성립과 경내 묘지 조성의 줄이였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마쓰오 겐지 교수는 "사예를 꺼리지 않은 선승·율승·염불승·일련종 문하승들이 장례 등에 조직적으로 참여해 오늘날 장례불교를 이뤘다"고 말했다.

불교·힌두교·유교 '효' 비교

김호성 교수는 주제발표 '불교화된 효 담론의 해체'에서 유교에서 주장하는 "불교에는 효가 없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불교와 힌두교, 유교의 효개념을 비교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도

윤리로서의 효'라 규정했다.

"중국 유교의 효는 가족윤리로서 효에서 출발했지만 가족윤리라는 한계에 머물지 않았다." 김호성 교수는 "중국 유교의 효는 충(忠)으로 연장됐고, 천하를 질서 짓는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중심주의의 별애설과 연결됐다"고 정리했다.

김호성 교수는 인도 불교의 효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인도 힌두교의 효를 <마하바라타>를 통해 정리했다. 김 교수는 "인도 힌두교도 효를 강조했다"며, 스스로 독신의 맹세를 세우고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재혼을 성사시킨 비슈마의 불혼(不婚) 이야기, 판두 아들들이 취한 일처오부(一妻五父) 관계서 드러난 어머니에 대한 순명(順命) 이야기를 소개했다.

다만 인도 힌두교에서는 효보다 카스트질서가 중시됐다. 김호성 교수는 <마가바드기타>에 나온 아르주나의 회의와 크리슈나의 응답에 따르면 계급의 의무가 가족의 법도

보다 우위였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인도 불교의 효는 인도인 유교와 다르고 중국 유교와는 더 크게 다르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중국 유교의 효는 '효보다 더 큰 것은 없다(莫大於孝)'는 위상을 갖지만 인도 불교의 효는 아니다. 인도 불교에서 효는 동체대비의 미로 가족중심주의를 떠나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 힌두교와 중국 유교의 효는 가부장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불교의 효는 가부장제 속에서 논의되는 개념이 아니다. 불교는 가부장제 등 지배이데올로기가 아닌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전통"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성운 사장(정우서적)은 '한국불교의 시식(施食)의 인식과 변형 고찰'을 통해 한국불교의 시식의 의의를 개괄했다. 이 사장은 "가변적인 의식이 회대한 경전과 사리에 계합해야 한다"며, "한문 중심의 시식문을 한글로 번역하자"고 제안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국보급 통일신라 삼세불 공개

원광대 양은용 대학원장 '문화사학' 29집서 발표



원광대 양은용 대학원장이 연구발표한 통일신라 '개원 3년형 석조삼세불입상'.

신라시대 찬란했던 불교문화를 미소로 머금은 국보급 통일신라시대 삼세불이 공개됐다.

삼세불의 정식 명칭은 '개원3년형 석조삼세불입상(石造三世佛立像)'. '대당 개원 3년(大唐開元三年·715년)'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소장자 정모씨 부친이 1965년 경주시 소재 발을 일구던 중 수습한 것을 장롱에 보관하다 공개한 삼세불은 높이 42.6cm×넓이29.7cm×깊이 11.7cm 크기다.

여의주를 든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한 본존불(현세불)을 중앙으로 좌우 협시불은 합장인(合掌印)을 하고 있다. 삼세불 모두 하나의 연부리에서 올라온 세 개의

연꽃위에 나란히 서있는 일경삼존(一莖三尊) 양식을 갖췄다.

불상에는 '대당 개원 3년 4월 5일 유거는 아버지를 위해 삼세불 일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유거가입종을 맞은 부친을 위해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계에서는 신라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불상으로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며 국보급으로도 손색없다는 평가를 했다.

한편 원광대 대학원 양은용 원장은 최근 <문화사학> 제29집에 '통일신라 개원삼년형 석조일경삼존삼세불입상에 관한 연구'란 논문을 통해 삼세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직지사 대웅전·봉암사 극락전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9월 3일, 김천 직지사 대웅전(경북 유형문화재 제215호)과 문경 봉암사 극락전(경북 유형문화재 제255호)을 각각 보물 제1576호, 제1574호로 지정했다.

김천 직지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49년(인조 27년) 중창했다. 현재의 대웅전은 1735년(영조 11년) 중건된 것이다. 대웅전은 대포계 팔작지붕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이고, 가구식 기단을 갖췄다. 용머리조각과 호형의 부재를 사용한 계단 우석의 형태와 결구법이 특이한 것이 특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직지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직후 재건된 불교전각들의 경향을 보이며, 가구의 구성 및 부재의 표현기법이 조선후기의 건축적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어 보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지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직지사 대웅전 현판을 친일파 이완용이 작성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현판과 별도로 건물 자체의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돼 보물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문경 봉암사 극락전은 신라 경순왕이 피난시 원당으로 사용한 건물로 전한다. 학계에서는 형태나 위치로 보아 조선 중·후기에 세워진 왕실 원당일 가능성이 높고, 기단과 초구석이 고려조의 것으로 추정한다. 독특한 외관과 건축수법 및 단청 등에서 조선 중·후기 건축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등의 가치가 인정돼 보물로 지정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9월 19일 간화선 세미나 개최

조계종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가 간화선 대중화를 모색하기 위해 여는 제7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가 9월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간화선 수행에서 화두의 기능과

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는 박재현 연구교수(서울대학교)와 정영식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각각 '화두의 기능과 역할'과 '화두 수행에서 발생하는 병통과 극복'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동섭 기자

효령대군 재조명 선리연구원 월례발표회

개인교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은 '승개폐불'이라 불리며, 조선시대 승유역불에 비교되는 요즘이다. 이런 가운데 조선초기 효령대군이 '생불(生佛)'로 추앙받던 15세기 대표적인 호불자(好佛者)였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이 9월 5일 인곡동 선학원에서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인곡민 연구원(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은 '효령대군 이보의 불사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인 연구원은 "조선초기는 승유역불을 표방했지만 왕의 성향에 따라 신불(信佛)과 역불(御佛)이 혼재됐다"고 말했다. 인곡민 연구원은 "생존시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등 7명의 왕을 모셨던 효령대군은 종실의 수장으로 조상과 친족을 위해 불사를 행했다"고 설명했다.

인 연구원은 원각사 건립과 간경도감 참여 등을 예로 '세종의 친불적인 성향과, 세조의 호불정책 등에 효령대군이 왕과 불교를 잇는 매개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동양불교조계종 창종취지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금번 저희가 고귀하고 걸림없이 살다가신 원효선사의 덕행을 기리고 우리 후학들의 이정표로 삼고저 뜻있는 분들의 고견을 받들어 동양불교조계종이란 이름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을 뛰어넘고 진여와 생멸을 회통시키신 원효선사의 남기신 뜻은 후학들에게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시대를 관통하는 화쟁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전통과 그 유산이 오늘날 정체성이 흐려지고 교계 내의 자중타우월주의의 경향으로 부처님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유가 왜곡되어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에 동양불교조계종에서는 출세간을 아우르는 화회(和會)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창종(創宗)의 뜻을 내외에 알리는 바입니다. 관심있는 스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창종예정일 佛記 2552年 10月 中

佛記 2552年 6月 20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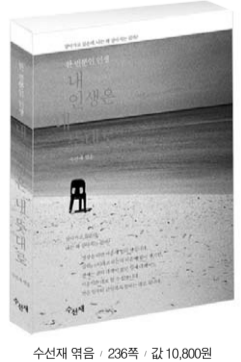
☎ 사무처 : (055) 333-7678
(010-5521-7677)

창종준비위원 覺性의 10人 합장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왜 살아지는 걸까?

【 내 인생은 내 뜻대로 】

명상학교 수선재의 스승인 문화영 님이 들려주는 '쉬운 깨달음' 이야기.
깨달음은 쉽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깨달음이다!



수선재 역음 · 236쪽 · 값 10,800원



수선재 역음 · 366쪽 · 값 12,000원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서울시 중로구 적선동 19번지 2층 Tel.[02]737-9454 Fax.[02] 737-9456